

新聞通信企業經營實態調查報告

Surveys of Newspapers, News Agencies and their Management

指 導 金 元 銖
 調 查 崔 大 勳

一. 序 言

本調査에서 意圖한바는 韓國의 新聞 및 通信企業經營構造를 實證的으로 分析把握함으로써 「매스·콤」을 通하여 社會文化의 一翼을 擔當하는 公益文化事業으로서의 性格이 強力히 浮彫되는 新聞通信企業의 近代化 내지 科學化 即 經營面에 있어서의 合理化에 一助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爲한 豫備作業의 一環으로서 事實에 關한 認識을 하려는데 있었다.

따라서 本調査에서 意圖한 바는 韓國 「매스·콤」企業의 現況을 通하여 「매스·콤」企業이 現在 어떠한 바탕 위에서 經營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의 近代化 내지 合理化를 阻礙하는 問題點이 무엇인지 認識 把握하고자 하는것에 不遇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앞으로 本格的으로 進行될 「매스·콤」企業經營實態調查의 設計를 爲한 基礎資料를 蒐集하려는 것이다.

「매스·콤」關係의 企業經營은 一般經營構造와는 어떻게 相馳된 立場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形態下에 또는 組織 내지 構造下에 經營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왜냐하면 特殊經營學의 體系下에서도 于今 이와같은 「매스·콤」關係의 經營에 關한 研究는 全無한 까닭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 비록 經濟的으로는 落後되어있다 하나 文盲率이 不過 10餘% 밖에 안되는 現實面에서 볼 때 이들 大衆에게 良識과 情報를 提供하는 新聞企業 및 通信企業이 韓國의 社會, 文化, 政治, 經濟, 教育 등 諸般分野에 미치는 그 影響이란 아주 至大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매스·콤」企業이 生産供給하는 良識 내지 情報는 社會大衆에 널리 均霑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通하여 韓國의 近代化는 보다 그 水準을 提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良識과 情報를 蒐集하고 이를 新聞 및 通信이라는 商品을 通하여 社會大衆에게 提供하는 新聞企業은 1 개의 「매스·콤」機關(Mass communication functionary)을 形成하며 이는 分業을 前提로 한 近代社會에 있어서 觀念的 내지 知的 隔離을 調節克服하는 社會的 機能을 遂行한다.

따라서 이는 이와같은 情報가 傳達되는 巨大한 經路인 「매스·콤」經路(Mass communication channel)와 아울러 「매스·콤」機構(Mass communication mechanism)를 形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스·콤」關係 企業은 비록 企業이기는 하나 公益的 性格이 濃厚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生産供給되는 商品인 新聞이라는 文化的 惠與에 모든 社會大衆이 均霑할 수 있으려면 應當 「매스·콤」組織과 經路는 勿論이며 個別的 機能單位인 「매스·콤」機關이 合理的으로 經營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메스·콤」企業經營實態에 關한 正確하고 올바른 認識은 앞으로 解決하여야 할 課題에 關한 어떠한 示唆 내지 暗示를 주리라는 期待下에 本調査가 豫備節次로서 進行되던 것이다.

따라서 本調査가 事實을 直視할 수 있고 分析評價 하기에 充分한 程度의 精密性 내지 正確性을 가지는 경우에는 解決하여야 할 問題點에 關한 解決方法을 模索하기 爲한 思考의 길을 더 주리라 期待하며 아울러 이것을 通하여 보다 精密한 認識作業을 爲한 調査設計의 基礎資料가 蒐集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觀點에서 進行된 本調査는 「메스·콤」事象의 正確한 認識을 하기 爲한 目的으로 試圖된 것이며 아울러 特定 「메스·콤」企業이 아니라 韓國에 있어서의 平均的 내지 類型的 新聞通信企業의 經營構造를 想定하려는 것이었음을 밝혀둔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本論稿는 分析的 視角에서 問題 接近을 試圖하기도 했으나 主로 記述의 내지 調査「레포트」의 性格을 가진 것임을 附言하여 둔다.

이 調査는 前述한 바와 같이 豫備의인 基礎資料蒐集에 그쳤으며 또한 新聞 및 通信企業의 經營擔當者에의 郵送質問技法(Mail questionnaire technique)에 의한 結果임을 밝혀둔다.

二. 總 論

① 調査目的

本調査는 韓國의 日刊新聞 및 通信企業經營의 構造 및 實態를 把握하고자 實施된 것이다.

② 調査項目

本調査의 內容은 別添 附錄의 調査表와 같으며 다시 調査結果에서 調査項目別로 檢討한다. (附錄 1. B 參照)

③ 調査對象

番號	題 號	番號	題 號	番號	題 號	番號	題 號
1	京 鄉 新 聞	12	日刊스즈즈新聞	23	三 南 日 報	34	江 原 日 報
2	東 亞 日 報	13	韓 華 日 報	24	湖 南 日 報	35	濟 州 新 聞
3	大 韓 日 報	14	國 際 新 報	25	全 南 日 報		
4	產 業 經 濟 產 聞	15	釜 山 日 報	26	木 浦 日 報	1	經 濟 通 信
5	서 울 新 聞	16	京 畿 每 日 新 聞	27	全 南 每 日 新 聞	2	東 洋 通 信
6	少 年 韓 國 日 報	17	仁 川 新 聞	28	大 邱 經 濟 新 聞	3	同 和 通 信
7	서 울 經 濟 新 聞	18	京 仁 日 報	29	大 邱 日 報	4	時 事 通 信
8	朝 鮮 日 報	19	忠 清 日 報	30	嶺 南 日 報	5	合 同 通 信
9	Korea Times	20	大 田 日 報	31	每 日 新 聞	6	貿 易 通 信
10	Korean Republic	21	中 都 日 報	32	慶 南 日 報		
11	韓 國 日 報	22	全 北 日 報	33	馬 山 日 報		

本調査의 對象은 1964年 9月 1日 現在 公報部에 登錄되어있는 韓國의 모든 日刊新聞 및 通信企業이다.

④ 調査方法

本調査에서는 郵送質問法을 採擇했다. 그 理由는 新聞 및 通信企業體가 全國에 散在해 있으므로 費用 및 技術上 面接質問法을 利用하기가 困難하였으며 또한 面接調査作業에 어느 程度 熟達한 調査員을 充分히 動員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이 調査에서는 質問書의 回收率을 높이기 爲하여 郵票가 貼付된 回信用封筒를 同封發送했다.

⑤ 調査期間

回收率을 提高하기 爲해 1964年 10月 15日부터 12月 31日까지 77日間을 質問書回送期間으로 設定하였다. 그리고 未回信企業에 對해서는 個別的訪問 내지 督促狀으로 質問書回送을 懇懇했다.

⑥ 質問書回收狀況

回收狀況 및 回收率은 第1表와 같다. 그리고 質問書를 回送하지 않은 新聞 및 通信企業의 名單은 第2表와 같다.

<第1表> 回收狀況 및 比率

業種	區分	回收狀況	發送數	回收數	未回收數	返還數	新聞 및 通信의 全體回收率
			總數	比率	總數	比率	
新聞	總數		35	20	14	1	59%
	比率		100%	57%	40%	3%	
通信	總數		6	4	2	—	
	比率		100%	67%	33%	—	

(註) 第1表에서 返還數 1은 京仁日報가 廢刊되어 返還되었다.

<第2表> 地域別 未回收 企業의 分布 및 社名

區分	發送數	未回收數	未回收比率	未回送 新聞企業名	發送數	未回收數	未回收比率	未回送通信企業名
서울	13	5	36%	東亞日報, 產業經濟, K. R. 日刊 스포츠新聞, 韓華日報	6	2	33%	時事通信, 貿易通信
畿原	2	1	7%	仁川新聞	—	—	—	—
江原	1	—	—	—	—	—	—	—
忠南	2	—	—	—	—	—	—	—
忠北	1	1	7%	忠清日報	—	—	—	—
慶南	4	2	14%	國際新報, 慶南日報	—	—	—	—
慶北	4	1	7%	每日新聞	—	—	—	—
全南	3	1	7%	全南每日新聞	—	—	—	—
全北	3	2	14%	三南日報, 湖南日報	—	—	—	—
濟州	1	1	7%	濟州新聞	—	—	—	—
合計	34	14	99%	14	6	2	33%	2

⑦ 集計

(1) 集計期間

1965年 1月 5日~1月 20日

(2) 集計方法

發送名單의 「코드번호」(Code number)에 따라 配列作表하고 集計했으며 計數는 小數點 以下 한자리까지 計算하고 이를 四捨五入하였다.

三. 調 查 結 果

調查結果는 回收된 質問書에 記載된 事實을 基礎로 分析하였다.

(一) 創立年度

<第3表> 創立年度別企業數

區 分	年 度	1945年以前	1945年度	1945年以後
		新聞	2	2
通信		—	—	4

第3表에 依하면 新聞 및 通信企業의 創立年度는 韓國의 社會, 文化, 政治, 經濟 등 諸般構造에 一大轉機를 劃한 1945年을 基準으로 하여 解放되던 해에 2個社가 創立되고 그 以前에 2個社가 創立되었

으며 그 以後에 16個新聞社와 4個通信社가 創立되었다.

그리고 第4表와 같이 中央 및 地方紙別로 創立年度를 區別하여 보면 1945年度에 2個의 地方紙企業이 創立되고 1945年 以前에 2個의 中央紙企業이 創立되었으며 1945年以後에는 6個의 中央紙企業과 10個의 地方紙企業이 創立되었다.

<第4表> 創立年度別 및 創立地域別企業數

區 分	年 度	1945年以前	1945年	1945年以後
		新聞	2	—
	地方	—	2	10
通信	中央	—	—	4
	地方	—	—	—

또한 通信社는 1945年以後에 4個 모두 中央에서 創立되었다.

第4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解放以前에는 地方新聞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全體新聞企業의 平均 企業壽命은 1964年 末을 基準해서 解放 約 17年이었다.

(二) 企業形態

<第5表> 企業形態別企業數 및 比率

區 分	形 態	株式會社	比率	個人所有	比率	財團法人	比率	社團法人	比率	計	比率
		新聞	12	80%	7	100%	1	100%	—	—	20
通信	3	20%	—	—	—	—	1	100%	4	17%	
計	15	100%	7	100%	1	100%	1	100%	24	100%	
全體比率		63%		29%		4%		4%		100%	

第5表에 依하면 新聞通信企業形態에는 合名會社, 合資會社와 같은 中間的인 企業形態는 하나도 없고 모두 株式會社 아니면 個人所有企業이었다.

또한 新聞 및 通信企業을 통털어보면 株式會社는 全體의 63%이고 個人所有는 29%, 財團法人과 社團法人이 1個企業씩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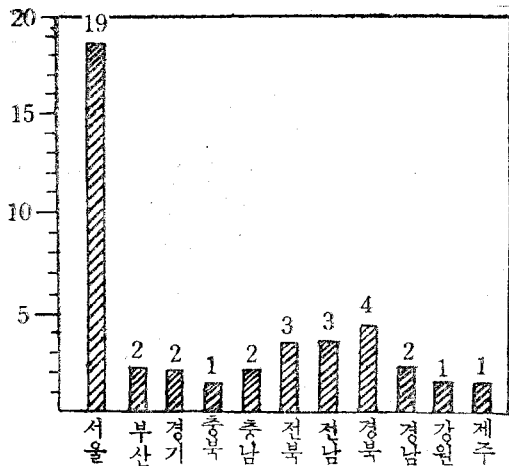
이렇게 볼때 法制的 形態面에서 新聞 및 通信企業은 比較的 近代的 企業形態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三) 所在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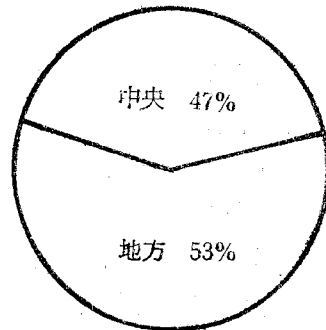
<第6表> 地方別新聞 및 通信企業所在數 및 比率

地 域 企 業 數	서 울	釜 山	京 畿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江 原	濟 州	計
全企業數	19	2	2	1	2	3	3	4	2	1	1	40
比 率	47%	5%	6%	3%	5%	7%	7%	10%	5%	3%	3%	100%

<第1圖> 地方別新聞通信所在數



<第2圖> 地域別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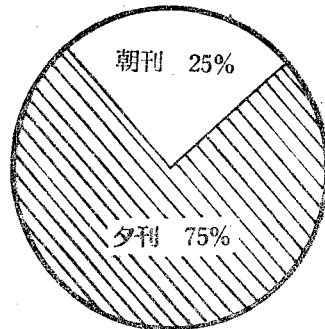


第2圖에 依하면 新聞 및 通信企業은 中央에 47%, 地方에 53% 所在하고 있다.

(四) 刊行時期

<第7表> 朝夕刊別企業數

刊 行 時 期	區 分	全 體 數	比 率
朝 刊		5	25%
夕 刊		15	75%



<第3圖>

第7表에 依하면 朝刊을 發行하고 있는 企業數가 5個로서 25%를 占하고 있고 夕刊을 發行하고 있는 企業이 15個로서 75%를 占하고 있다.

中央紙의 경우에는 新聞에 따라 朝刊 또는 夕刊을 發行하고 있었으나 地方紙의 경우에는 모두 夕刊만을 發行하고 있었다. 그런데 通信企業에서는 經濟記事만을 取扱하는 經濟通信이 2便

을 發行하고 그 以外의 一般通信은 6 便을 發行하고 있다.

(五) 資本額

<第 8 表> 資本額別企業數

資 本 額	新 聞	通 信
80萬圓	1	—
10萬圓	1	1
3百萬圓	1	—
5百萬圓	5	—
1千萬圓	1	1
1千5百萬圓	6	—
3千萬圓	2	—
3千5百萬圓	1	—
6千萬圓	—	1
7千5百萬圓	1	—
財團法人	1	—
社團法人	—	1
計	3,198拾萬圓	8,100萬圓
總 計	4億80拾萬圓	

<第 9 表> 所在地別資本額

所 在 地	總資本數	比 率	平 均	比 率
中 央 紙	12,050萬圓	48%	3,000萬圓	68%
地 方 紙	13,456萬圓	52%	1,120萬圓	32%
計	254百萬圓	100%	4,120萬圓	100%

(註) 通信企業과 社團法人 및 財團法人除外

<第 10 表> 企業形態別資本額

企 業 形 態	總資本額	比 率	平 均	比 率
株 式 會 社	24,630萬圓	78%	1,640萬圓	47%
個人所有企業	7,020萬圓	22%	1,755萬圓	53%
計	31,650萬圓	100%	3,395萬圓	100%

(註) 社團法人과 財團法人除外

第 8 表에 依하면 新聞企業의 全體資本額은 3 億 1 千 9 百 8 拾萬圓이고 通信企業의 全體資本額은 8 千百萬圓이다.

그리고 新聞通信企業의 總資本額은 4 億 8 拾萬圓이다.

또 第 9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所在地別로 區別하여 보면 中央紙企業의 總資本額은 1 億 2 千 5 拾萬圓으로서 48%를 占하고 地方紙企業의 總資本額은 13,456 萬圓으로서 總資本額의 52%이다. 또 1 個新聞企業의 平均資本額을 살펴보면 中央紙企業들이 3,000萬圓씩 所有하고 있는 셈이고 地方紙企業들은 1,120萬圓씩 所有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企業形態別로 보면 株式會社의 總資本額은 24,630 萬圓으로서 78%를 占하고 있고 個人企業은 7,020 萬圓으로서 22%를 占하고 있다.

그런데 株式會社의 企業當平均資本額은 1,640 萬圓이고 個人所有企業의 企業當 平均資本額은 1,755 萬圓으로서 前者는 47%를 占하고 있고 後者는 53%를 各各 占하고 있다.

(六) 印刷施設의 有無 및 臺數

新聞企業과 通信企業은 모두가 自體施設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中央에 있는 新聞企業들은 2 臺 내지 4 臺의 高速輪轉機를 所有하고 있으나 地方에 있는 新聞企業들은 대개 輪轉機와 活版 및 平版印刷機를 兼有하고 있었으며 地方의 어떤 新聞企業은 輪轉機없이 活版印刷機 4 臺로 新聞을 發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2 個通信企業은 5 臺 내지 7 臺의 自動 및 手動謄寫機로 通信을 發行하고 있었다.

資本額이 많다고 해서 輪轉機臺數가 많은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資本額 5 百萬圓 程度의 個人所有企業이 4 臺의 輪轉機를 施設하고 있었는데 이는 數種의 新聞을 發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된다.

(七) 從業員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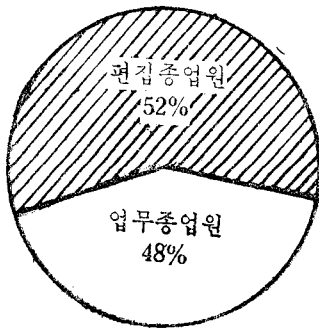
<第 11 表>

職種別 性別 從業員數 및 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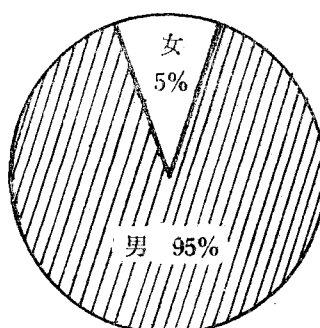
職 種	形 態 性 別	新 聞		通 信		計		比 率
		比 率	比 率	比 率	比 率	比 率	比 率	
編輯從業員	男	1,065명	96%	296명	92%	1,361명	95%	52%
	女	48명	4%	23명	8%	71명	5%	
	計	1,113명	100%	319명	100%	1,432명	100%	
業務從業員	男	1,164명	95%	89명	89%	1,253명	95%	48%
	女	56명	5%	11명	11%	67명	5%	
	計	1,220명	100%	100명	100%	1,320명	100%	
計	男	2,229명	96%	385명	92%	2,614명	95%	100%
	女	104명	4%	34명	8%	138명	5%	
	計	2,333명	100%	419명	100%	2,752명	100%	
比 率		84%		16%		100%		

(註) 一個新聞은 편집종업원수와 업무종업원수를 밝히지 않아 集計에서 除外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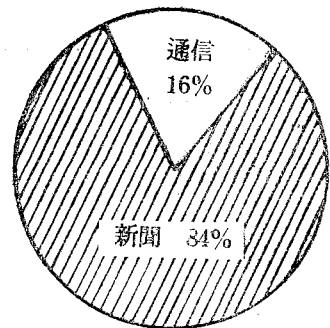
<職種別比率表>



<性別比率表>



<形態別比率表>



<第 12 表>

職種別 性別 從業員數

職 種	形 態 性 別	新 聞		通 信		合 計	
		數	數	數	數	數	數
編輯部門數	男	1,065명	296명	1,432명			
	女	48명	23명				
業務部門數	男	1,164명	89명	1,320명			
	女	56명	11명				
合 計	男	2,286명	42명	*2,885명			
	女	124명	51명				

第 12 表에 있는 合計 2,885 명과 第 11 表에 있는 總合數 2,752 명과는 133 명의 差가 나는데 이는 註에서 밝힌 바와 같이 1 個新聞의 從業員數가 第 11 表의 集計에서 除外되었기 때문이다.

(* 職種不明의 一個企業 從業員數가 包含되어 있음)

(八) 平均月給額

<第 13 表> 新聞通信의 職種別給與額水準數

業種 職種 給與額	新 聞		通 信	
	編輯從事員	業務從事員	編輯從事員	業務從事員
14,000원	—	—	1	—
13,000원	1	—	—	—
12,000원	1	1	—	—
11,000원	1	1	—	—
10,000원	2	—	2	—
9,000원	—	1	—	2
8,000원	1	2	—	—
7,000원	—	1	—	—
6,000원	1	1	—	—
5,000원	2	2	—	—
4,000원	4	3	—	—
3,000원	3	5	—	—

新聞通信企業은 從業員들에게 모두가 月給制로 俸給을 支給하고 있다.

新聞 및 通信企業에 從事하는 全體從業員의 平均給與額은 約 8千 5百원 이고 이를 中央과 地方別로 나누어 보면 第14 表와 같이 中央이 約 萬원, 地方이 約 5千원의 俸給을 받고 있다.

그리고 編輯從業員과 業務從業員 別로 나누어 보면 全體編輯從業員의 平均俸給額은 9,300원(中央 11,000원, 地方 5,600원)이고 全體業務從業員의 平均俸給額은 7,700원(中央 9,000원, 地方 4,500원)이다.

그런데 「韓國新聞人의 實態와 意識에 關한 調査」에 依하면 中央의 新聞通信編輯從業員의 平均俸給額

<第 14 表> 所在地別平均給與數

業種 職種 給與額	新 聞		通 信	
	編 輯	業 務	編 輯	業 務
中央平均給與額	11,250원	8,500원	11,000원	10,000원
地方平均給與額	5,600원	4,500원		

이 約 16,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 本調査結果에 따르면 中央의 新聞通信編輯從業員의 平均俸給額은 11,250 원이어서 約 5,450 원의 差異가 생긴다.

<第 15 表> 新聞通信從事員의 平均給與額과 産業部門從事員의 平均給與額比較

職種別 給與額 産業別 區分 給與額	編輯部門 (9,300원)			業務部門 (7,700원)			평균급여액 (8,500원)		
	給與額	差 額	比 率	給與額	差 額	比 率	給與額	差 額	比 率
石炭部門給與額	6,040원	3,260원	54%	6,040원	1,660원	27%	6,040원	2,460원	40%
印刷部門給與額	5,410원	3,890원	72%	5,410원	2,290원	42%	5,410원	3,090원	57%
平均 給與 額	4,990원	4,310원	86%	4,990원	2,710원	54%	4,990원	3,510원	70%

또한 韓國鑛業 및 製造業 生産從業員의 月當給與額은 平均 4,990 원이며 最高給與額인 石炭鑛業 從事員 平均月給與額은 6,040 원이고 다음 印刷業從事員의 그것은 5,410 원인데 (2) 이와 對比하여 볼때 新聞通信企業 從事員의 給與水準은 第 15 表와 같이 平均 70%의 格差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九) 購讀料收入과 廣告收入의 總收入에 對한 比率

(1) 資料源 :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 新聞研究學報, 1, 1964, p 44 第 33 表 參照
 (2) 韓國銀行調查部, 經濟統計年報, 1964, p 264, 第 169 表 參照

<第 16 表> 購讀料 및 廣告收入比率

業種 收入	新 聞	通 信
購 讀 料 收 入	52%	100%
廣 告 收 入	47%	—
總 合	99%	100%

第 16 表에 依하면 新聞企業은 購讀料收入이 52%, 廣告收入이 47%이어서 購讀料收入이 廣告收入보다 5% 더 많고 通信企業에서는 購讀料收入이 100%, 廣告收入은 없었다.

註 ① 廣告收入에서는 通信企業除外 ② 比率記入이 不明確한 2 個社는 集計에서 除外함.

(十) 新聞一面當 製造原價의 推定

中央에 所在하고 있는 新聞企業들은 新聞一面當 製造原價의 推定을 1 원에서 7 원 사이라고 記入 하였는데 地方에 있는 新聞企業들은 8 원에서 15 원 사이라고 記入하고 있다.

그리고 一面當製造原價의 推定을 1 원이라고 한 新聞企業들은 25%, 1 원에서 7 원 사이라고 한 企業들은 50%, 10 원에서 15 원 사이라고 한 企業은 25%이다.

이러한 資料에서는 도저히 平均的인 新聞一面當製造原價의 平均植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指針으로 購讀料에서 面當販賣價格을 推定하여 보면 1.03 원이 되었다.(3)

따라서 萬一 新聞購讀料가 損益分岐點(break-even point)을 上廻하는 水準以上の 것이라 한다면 新聞一面當 製造原價는 이 水準以下로 下廻하여야 되리라 생각한다.

(十一) 發行部數 · 購讀契約 · 街版 · 海外發送

20 個新聞企業의 總發行部數는 1,395,638 部이었다.

그리고 發行部數를 가장 많이 가진 新聞企業은 中央에 하나 있는데 그 發行部數는 300,000 部이었다.

註 ③ (a) 月間平均 發行面數는 現在 單刊制로서 隔日로 4 面 및 8 面을 發行하므로 平均 6 面을 發行한 다고 보고 또 週 6 回 發行하므로 1 個月을 4.5 週로 보아 다음과 같이 計算하였음.

$$\text{日當平均發行面數} \times \text{週當發行回數} \times \text{月間平均週數} = \text{月間平均發行面數}$$

$$6 \times 6 \times 4.5 = 162 \text{ (面)}$$

(b) 月間平均 街販購讀料는 6 面當 即 日間平均 街販購讀料 7.5 원에 月間 6 面當發行部數 即 月間新聞發行日數를 乘하여 얻었다.

그런데 日當平均街販購讀料는 隔日로 4 面の 경우 5 원 8 面の 경우 10 원이므로 合計하여 그 平均을 求하여 計算하였음.

$$\frac{5+10}{2} \times \frac{162}{6} = 7.50 \times 27 = 202.50 \text{ (원)}$$

(c) 面當平均 推定販賣價格은 月定購讀料 및 日間街販購讀料의 平均을 月間發行面數로 除하여 다음과 같이 計算함

$$\frac{\text{月定購讀料} + \text{月間街販購讀料}}{2} \div \text{月間發行面數} = \text{面當販賣價格}$$

$$\frac{130 + 202.50}{2} \div 162 = \frac{166.50}{162} = 1.03 \text{ (원)}$$

<第 17 表> 地方別面當原價推定額 및 水準別比率

中 央	1 원 ~ 7 원 사이
地 方	8 원 ~ 15 원 사이
1 원 以 下	3 (25%)
1 원 ~ 7 원	6 (50%)
10 원 ~ 15 원	3 (25%)

註 ① 不記入 6 個企業除外

② 非合理的인 推定價 即 一面當 1,100 원 및 400 원을 記入한 企業分은 除外하고 集計하였음.

發行部數가 가장 적은 新聞企業은 地方에 있었는데 그 發行部數는 2,500 部이었다.

發行部數의 95%는 購讀契約으로 販賣하고 있었으며 街販이 約 4%, 海外發送이 約 1%이었다. 全히 購讀契約에만 依存하고 있는 新聞企業은 約 21%인데 모두가 地方에 所在하고 있다.

海外發送比率이 1% 以上인 企業은 3 個인데 地方紙의 경우 둘로서 各各 3%, 2%이며 中央紙의 경우 하나로서 2%이다.

(十二) A.B.C.의 必要性

<第 18 表> 企業數 및 比率

區分	數	企業數	比率
贊成	6	6	29%
不贊成	7	7	33%
不記入	8	8	38%

第 18 表에 依하면 發行部數 調査機關의 必要性을 贊成하는 新聞通信企業은 29% 뿐이고 不贊成 및 不記入한 企業이 各各 33%, 38%나 되었다.

(十三) 主配布地域

第 19 表에 依하면 全國을 主配布地域으로 하고 있는 新聞通信企業은 50%이고 地方을 主配布地域으로 하고 있는 企業도 50%이었다.

그런데 中央에서 發行되는 新聞들은 모두 全國紙이었고 通信은 中央에만 所在하고 있는 點이 特異한 現狀이었다.

<第 19 表> 企業數 및 比率

區分	配布地域	全 國	地 方
中 央		12(50%)	—
地 方		—	12(50%)

(十四) 社屋延建坪數

新聞通信企業의 社屋總延建坪數는 10,062.8 坪(約33,207 m²)이다.

그리고 가장 큰 社屋은 2,471 坪(約 8,154m²)이고 가장 작은 社屋은 60 坪(188m²)이다.

또한 2 個企業은 不記入하였다.

(十五) 主要地域에의 配布數

<第 20 表> 配布率과 配布數

配布率	配布數	配布率	配布數
100%	—	60%	1
90%	6	50%	1
80%	5	40%	2
70%	—		

第 20 表에서와 같이 主要配布地域에 100% 配布하는 新聞企業은 하나도 없고 90%가 6 個企業으로서 가장 많고 80%가 5 個企業, 40%가 2 個企業, 60%와 50%가 各各 1 個씩 있었다.

(十六) 經營組織

<第 21 表> 企業數 및 比率

區 分	企業數 및 比率		區 分	企業數 및 比率	
	當該部署를 두고 있는 企業數	%		當該部署를 두고 있는 企業數	%
편집부	20	100%	업무부	20	100%
공무부	18	90%	지국부	13	65%
광고부	16	80%	기타	12	60%

모든 新聞 및 通信企業은 編輯부와 業務部를 두고 있다.

그리고 工務部는 全體의 90%가 廣告部는 80%가, 支局部은 65%가 또 其他 部署는 12%의 企業이 各各 두고 있었는데 其他 部署에는

註 ① 不記入 1 個 企業은 集計에서 除外

② 部署 局으로 呼稱한 企業이 3 個 있었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寫眞製版部, 企劃部, 審議部
- 製版部, 記事審査部, 어린이
- 찾기部, 民情相談所, 少年部
- 整理部, 無電部, 英經部
- 電務部, 同和「그라프」部, 受信部

<第22表> 企業數와 比率

區 分	企業數	當該部署를 두고 있는 企業數	%
編輯部	21	21	약88%
地方部	18	18	75%
社會部	21	21	약88%
政治部	21	21	약88%
經濟部	20	20	약83%
文化部	18	18	75%
體育部	13	13	약54%
校正部	20	20	약83%
調查部	20	20	약83%
寫眞部	21	21	약88%
外信部	19	19	약80%
特輯部	10	10	약42%
科學部	2	2	약 8%

註 同系新聞 4 個는 1 企業으로 看做했음

(十七) 編輯部門의 組織

編輯部와 社會部, 政治部 및 寫眞部는 모든 新聞通信企業이 두고 있다.

그리고 經濟部와 校正部, 調查部를 約 80%의 企業이 두고 있으며 外信部 約 80%, 地方部 75%, 文化部 75%; 體育部 約 54%, 特輯部를 約 42%의 企業에 各各 있는데 科學部는 겨우 8%뿐이었다.

(十八) 韓國新聞業界의 發展을 圖謀하기爲한 提言

20%의 新聞企業이 用紙難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의 解決이 있기를 몹시 바라고 있었다.

四. 結 言

今般의 新聞經營實態調查를 通하여 볼때 一般的으로 韓國의 新聞企業은 大體로 近代의인 經營意識構造를 가졌음을 알수 있었다.

왜냐하면 學究를 爲한 資料蒐集作業에 意欲으로 協助하여준 企業이 全體新聞通信企業의 59%나 占하는 까닭이다. 그런 反面에 有名하고 또 指導의 立場에 있는 新聞企業이 이와같은 調查의 根本의 理念을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理由는 本調查에 調査表를 回送하지 않은 企業은 勿論이나 協助한 企業의 경우에도 回答記入欄에 非合理的인 內容이 散見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事實은 韓國新聞企業의 最高經營層이 이를 認識하지 못하거나 不然이면 前近代의 내지 封建的인 思考方式에서 故意로 現實의 直視와 解明을 통한 現實改善의 意欲을 挫折시키기 爲하여 忌避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發行部數調查機關의 設置와 이를 통한 公正한 「메스·콤」의 發達을 大多數의 國家가 利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本調查에서는 그 認識도가 겨우 33%에 不過하며 不記入이 38%나 된다는 點은 韓國新聞企業의 前近代性 내지 封建性을 示唆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本調査가 「매스·콤」 經路를 形成하고 大量傳達의 機能을 遂行하는 「매스·콤」 企業中 特히 新聞 및 通信企業에 그 對象을 限定하여 이루어진 豫備調査라는 點과 이것이 앞으로의 보다 精密한 現實分析을 爲한 本格的 調査設計를 爲한 資料蒐集에 있었다는 點을 생각할 때 本調査는 應分の 研究方向을 提示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對한 分析은 앞으로의 課題이나 그러기 爲하여서는 앞으로 新聞및 餘他 「매스·콤」 企業의 經營에 關한 보다 精密하고 正確한 第一次資料의 蒐集이 意欲으로 또한 繼續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아울러 現實으로 「매스·콤」 經營構造內에서 管理를 擔當하는 經營者 各位의 積極的이며 建設的인 協助를 期待하지 않을 수 없다.

本調査를 끝냄에 있어 多忙한 事業中에서도 調査에 應하여준 新聞通信企業에 謝意를 表하며 아울러 微少한 斷面의 認識에 不遇한 本調査가 韓國新聞通信 나아가서 「매스·콤」 企業의 經營 合理化에 若干이나마 寄與할 수 있기를 빈다.



謹啓

今般 本研究所 研究事業의 一環으로 社會的으로 文化水準 向上에 寄與하고 있는 新聞 및 通信企業의 經營實態를 把握하고자 하여 別添 調査表를 同封하여 보내오니 該當欄에 回答을 表記하시와 同封返送用 封筒를 利用하여 回送하여 주심을 仰望하나이다.

本調査는 韓國의 各 新聞 및 通信企業의 經營實態를 包括的 計數的으로 把握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決코 貴社에 累弊를 끼치지 않을 것임은 勿論 外部에 對하여 秘密을 嚴守할 것이며 다만 學術的 研究에 資하고자 하오니 格別한 協助를 懇請하는 바입니다.

貴社의 日益 繁昌을 冀祝하나이다.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

所長 陸 芝 修



第1回 新聞企業經營實態調查表

Code No.

1. 創立年度	2. 會社形態		株式會社() 有限會社() 合資會社() 合名會社() 個人所有()
3. 所在地	4. 刊行期間	日刊() 朝刊() 週刊() 夕刊()	
5. 資本金額	6. 印刷施記의 有無	有() 無()	印刷機具種類() 및 臺數()
7. 從業員數	8. 編輯社員	男() 女()	業務社員() 男() 女()
9. 平均月給與額	編輯社員() 業務社員()	給與支給方法	月給() 週給() 日給()
10. 財務諸表의 公表與否	公表() 否()	會計期間	1년() 6개월()
11. 購讀料收入의 總收入에 대한 比率	() %		
12. 廣告料收入의 總收入에 대한 比率	() %		
13. 新聞一面當 製造原價의 推定	(원)		
14. 發行部數	部	購讀契約數() % 販賣() % 海外發送() %	
15. A.B.C.(發行部數調查機關)의 必要性	必要하다() 必要없다()		
16. 主配布地域	全國() 全北() 全南() 慶南()	京畿() 江原()	濟州() 慶北()
17. 主配布地域에의 配布數	() %		
18. 社屋延坪數	坪		
19. 經營組織	編輯部() 工務部() 廣告部() 業務部() 支局部() 其他部門()		
20. 編輯部門의 組織	編輯部() 文化部() 外信部()	地方部() 體育部() 特輯部()	社會部() 校正部() 科學部() 政治部() 調查部() 其他名稱記入() 政總部() 寫真部()
21. <新業界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한 提言>			